



지부교섭 속보

기본급 159,900원 인상
유급 대체휴무 쟁취
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!

제10호 / '15.7.24(금)

■발행처:선전부 ■발행인:조민제 ■주소: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■전화:043-236-5077 ■http://dc.kmwu.kr

사측 결국 휴가 넘기나?

아직도 4개사는 의견접근 안돼

사용자들이 조합원의 열망을 무시했다

23일(목) 열린 12차 지부교섭은 휴가 전 타결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교섭이었다. 29일부터 휴가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교섭이었다. 지부는 중앙교섭이 의견접근된 상황에서 지부교섭도 적극적으로 타결을 향해 가자고 제안했다. 다음주 27일, 28일도 교섭할 수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.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들의 열망을 무시했다. 이날 교섭에서는 대한이연과 JCC만이 임금인상에 의견접근했고 나머지 사업장은 여전히 난항이다. 위험성평가는 중앙교섭 합의내용과 동일하게 의견접근을 봤다.

6차 제시안

1. 2015년 임금인상

- 대한이연(주) : 기본급 월 70,000원 (2015.4.1부)
- 한국JCC(주) : 기본급 월 57,500원 (2015.3.1부)
- (주)코스모링크 : 기본급 월 24,000원 (2015.4.1부)
- 한국로버트보쉬 : 연봉평균 대비 3.3%인상
(연간 평균 인상액 1,459,198원)
- KDK : 기본급 월 20,000원 (2015.3.21부)
- 한라비스테온공조 : 추후 제시

2. 유급휴일

- ① 설날연휴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, 추석연휴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가 일요일과 중복시 익일을 휴무로 있다. 단, 연간 근로일수가 감소

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대체 근로일을 정한다.

- ② 상기 ①항의 내용보다 각 사별 단협이 상회하는 경우 그 단협에 따른다.

3. 위험성 평가

-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조합(지회, 분회)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.
-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하며, 조합측 인원내 대한 회의 참석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. 단, 위험성평가 실시 기구, 시기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.

휴가 후 투쟁은 더 커진다!

휴가 전에 마지막으로 교섭을 한차례 더 개최할지는 실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. 사용자들이 의견접근할만한 내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. 올해 사용자들은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지 교섭에 아주 불성실하다. 휴가 후에 이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다.

아직까지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임금안을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았다. 코스모링크는 시급 100원 인상을 제시했다. 무슨 짱으로 이렇게 대책없이 교섭하는지 이해가 안된다. 휴가 후 투쟁은 더 커질 것이다. 사용자들은 대책없이 버틴 걸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.

12차 교섭 속기록

대한이연, JCC만 임금인상 의견접근

사 : 매년 원만히 합의해서 잘해왔듯이, 중앙교섭도 지난주 합의되었으니 지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편하게 휴가 다녀오면 좋겠다.

노 : 중앙교섭이 화요일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교섭이 지회별로 논의할 수 있게 거의 열어두었다. 그런데 점검해보니 진전된 사업장이 몇 개 없다. 우려스럽게 생각한다. 오늘 본교섭이니 최대한 성의있는 안을 내주기 바란다. 29일부터 휴가 사업장이 있다. 오늘 안되면 27일, 28일까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. 여러모로 휴가 전 타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겠다.

사 : 일단 안을 가져왔다. 일부 회사는 임금 제시를 못하는 회사도 있다. 지회별로 논의된 회사는 추가적으로 열어주어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. 유급휴일도 지난 제시안보다 추가된 내용을 결론을 못내렸다. 위험성 평가는 중앙교섭 합의내용을 넣었다. 조항별로 얘기하고 임금은 별도로 얘기하자.

<안 검토를 위한 정회>

노 : 임금안이 처음 나왔는데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아예 없다. 어떡해야되나 싶다.

사 : 한라비스테온공조가 다른 해와 상황이 다르다. 새로운 경영진이 오시다보니 기존의 교섭체계에 대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. 양해해달라. 다른 회원사들은 먼저 지부에서 의견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.

노 : 코스모링크, JCC, KDK는 작년과 차이가 크다. 이유가 있나?

사 : KDK는 다달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. 교섭을 통해 의견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. JCC도 어려움은 있지만 지회와 계속 얘기해서 의견접근 하겠다.

코스모링크는 전선업계 전체가 매출액이 30% 줄어들다보니 어렵다. 적자가 작년 두배이상 나고 있다. 노력해보겠다.

노 : 임금제시안 중 대한이연은 의견접근을 보고 나머지 사업장은 거리가 멀다. 유급휴일은 지난번 지적했는데 변화가 없다. 어린이 날이 빠져있는 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. 위험성평가는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잘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접근된 것으로 수용하겠다. 임금안 추가 제시할 여지가 있나?

사 : 가능하신 회사가 있으니 한 회사라도 더 접근하는 의미에서 정회하고 각 사별로 논의를 열자.

<지회별 실무교섭을 위한 정회>

노 : 사업장별로 얘기된 곳이 JCC밖에 없다. 논의된 안을 제출해달라. 올해는 지부가 여름휴가 전에 끝내자고 했는데 사용자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다. 오늘 대한이연과 JCC는 임금안 수용하기로 하겠다. 위험성평가도 수용하겠다. 유급휴일과 나머지 사업장 임금은 진전있는 안이 나오지 않았다. 오늘 교섭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겠다. 오늘 넘기면 휴가 전 타결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. 다음주 교섭을 더 해 봐야 할지 사측 의견을 알고 싶다.

사 : 내일도 교섭을 할 지회가 있다. 차기교섭은 실무 통해서 결정하자. 휴가 전 타결하고 훌가분하게 휴가 다녀오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조합의 강한 의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. 최선을 다해서 지회별 의견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.

노 : 대단히 유감스럽다. 며칠 더 고민한다니 기대해 보겠다.